

이색 먹거리 제공·고용 창출... 고창 '푸드트럭' 키운다

새싹보리떡볶이·풍천장어구이 등 벗꽃축제장서 인기 군, 신규 창업자 발굴·창업 교육·로컬푸드 홍보 등 지원

고창군이 '2023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축제장에서 푸드트레일러(트럭)를 운영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푸드트레일러'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먹거리로 지난 제1회 고창 벗꽃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다.

푸드 트레일러는 고창배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가 연계한 사업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들이 고창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고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새싹보리떡볶이, 복분자 핫도그, 풍천장어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고창군 벗꽃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푸드 트레일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트레일러 앞에는 MZ세대 위주로 긴 줄이 이어지며 축제장에 활력을 더했다.

푸드트레일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창군 청보리 축제에도 참가해 고창군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은 향후 푸드 트레일러 신규 창업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창업 교육, 로컬푸드 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홍정목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와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2023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축제장에서 다양한 푸드트레일러(트럭)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벗꽃축제장에서 선보인 '장어꼬치구이' 푸드트럭. (고창군 제공)

“고창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릴레이

결산검사위원 400만원·박병도 고창학숙 관리소장 566만원 등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에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위원들의 뜻을 모아 고창군 장학재단에 4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기탁식에는 대표위원 박성만 위원을 비롯해 임종훈, 김호진, 손병수, 이종선, 윤명수, 김태성, 정정열 위원이 참여했다.

또 MKYU 전북캠퍼스 회원 일동(지부장 진은선)도 100만원, 19대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일동(19대 회장 신미애)이 270만원을 기탁하며 인재육성에 뜻을 모았다.

앞서 박병도 고창(전주)장학숙 관리소장도 기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업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포상금 566만원 전액을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기탁자들은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탁하신분들께 감사하다”며 “주신 장학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춘향골체육공원 → 종합스포츠타운 변경

남원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된다.

남원시는 현시설 분위기와 감각에 맞는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미래산업 선도하는 스포츠 명품도시로 거듭나고자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지난 2002년 주경기장(종합운동장)을 개장해 춘향골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정했지만 11종의 신규체육시설이 확대 조성됨에 따라 총 15개의 체육시설이 집적화되어 종합경기장으로서의 명칭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읍면동 마을 및 체육단체, 시정직원 등을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대상으로 명칭변경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보드판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단체 등의 의견과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이란 명칭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7일자로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고 각종 국내외대회 유치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를 전국 최고의 시설을 보유한 스포츠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포츠 특화도시로 발돋움해 남원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수업 나눔 실천 교사제로 '수업 혁신'

초등교사 130명, 3~5인조 팀 조직해 맞춤형 수업 개발 공개

전북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수업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나눔 실천 교사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업 나눔 실천 교사제는 도내 초등교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로, 수업나눔 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동료성을 바탕으로 교내·외 교사 3~5인으로 조직된 각각의 팀은 창의·융합 수업을 연구하고, 학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생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수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업 이후 심층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업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개인 또는 팀만의 실적이 아니라 인근학교의 동료 교원들과 수업을 나누면서 수업 공개·협의 문화를 확산하고, 교직 사회를 학습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교육청은 수업 나눔 실천 교사들은 물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수업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업 혁신 지원단, 단위 학교 수업 나눔 교사연구회, 창의·융합 수업 실천 학교, 기본·심화 연수, 지역 중심 수업 나눔 공동체, 저경력 교사 연수 등도 운영된다.

도 교육청은 각각의 정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전북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 수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교실 혁명은 수업 혁신을 통해 이뤄지고,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받고,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 동주민센터서 혈관 건강 관리하세요

10월까지 기초검진 부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생활터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사진)'를 운영한다.

혈관 지킴이 건강 부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터를 방문해 기초검진과 함께 영양과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빈혈 등 검진을 통해 본인의 혈관 수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부스 운영 장소는 내장상동과 수성동, 장명동 등 지역 내 8개 동주민센터다. 매일 10일과 24일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기초검진을 통해 발견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자,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등에 대해서는 원광대학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해 개인별 상담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위크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과 연계해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